

코스피지수 1,371.84 (-21.46)

코스닥지수 517.96 (-11.15)

금리(국고채 3년) 4.03% (+0.01)

원·달러 환율 1,265.00원 (+12.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양제철소 21년만에 첫 적자 전직원 고철줍기 등 비상경영

하반기 흑자 전환 총력 경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비상이 걸렸다. 전 사원이 고철 줍기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광양제철소는 철광석과 유연탄 등 국제 원자재 수입값 인하 및 국내 철강 수요 증가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지만, 강도높은 자구책을 동원한 비상경영에 나서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제철소 준공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1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이 ▲3월 2천580억원 ▲4월 2천830억원 ▲5월 3천620억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영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이다.

원인은 국제 철강 원료가격 폭등으로 생산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시장의 침체에 따른 국내·외 철강 수요 감

소, 철강 판매 가격 하락 등이다. 광양제철소는 이에 전 구성원이 긴장 속에서 적자 탈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불필요한 낭비 줄이기 ▲불합리한 업무 근절 ▲불요불급한 비용지출 금지 ▲불굴의 도전

제철소는 9일 오전 11시 공장 내 생산관제센터 앞에서 조희하 광양제철소장, 근로자위원 및 공장협의회 대표, 공장장 등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적자탈출, 흑자실현 결의대회'를 갖고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흑자를 실현할 것'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불필요한 낭비 줄이기 ▲불합리한 업무 근절 ▲불요불급한 비용지출 금지 ▲불굴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업무수행 등 4개 항목의 실천을 다짐했다.

광양제철소 측은 "조선용 후판(厚板)과 자동차용 강판 수요가 늘면서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 도입 가격도 전년 도에 비해 각각 33%, 40% 내렸다"면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9일 공장에서 '경영위기 극복, 극한적인 원가절감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흑자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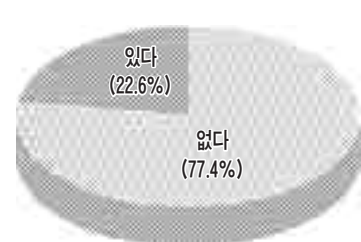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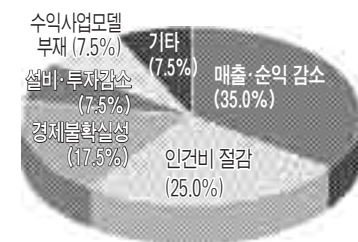
광주 제조업 하반기 채용 '뽕뽕'

경기회복 조짐 불구 상반기보다 60% 이상 줄어

광주상의 150곳 조사

하반기 신규채용 감소 이유

하반기 채용계획 여부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가 상반기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지역 내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 기업들의 신규채용 규모는 상반기보다 6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차 금속 및 조립금속(-100%), 비금속광물(-83.3%), 섬유·의복(-68.2%), 화학플라스틱(-62.5%), 인쇄출판(-61.1%), 전기전자(-44.1%), 기계(-26.9%) 등의 순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다.

신규채용을 줄이는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감소(3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절감 차원(25%), 경제 불확실성(17.5%), 설비·투자감소(7.5%), 수익사업 모델 부재(7.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하반기 직원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전체의 77.4%였다. '채용 계획이 있다'는 22.6%에 불과했다.

이의 채용 계획수립과 규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업들의 66.7%가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을 들었고 대내외 경기변동(20.5%), 생산성 대비 인건비 부담(11.5%) 등의 순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 환율, 유가, 원자재가 등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대부분 지역 기업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줄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제철 후판 공장 내년부터 본격 생산

광양시-㈜포스틸 MOU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후판 가공 공장이 들어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광양시는 9일 시청 상ホール에서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틸과 투자유치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 철강계 유통판매를 전담해 온 포스틸은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광양제철소에 후판을 용단·열처리하는 '광양 용단공장'을 지어 내년 7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오는 2010년까지 총 300

억원을 들여 태인동 광양국가산업단 내 10만6천914㎡ 부지에 건립되며, 광양제철로부터 후판을 공급받아 조선·건축용 강재 전처리 및 절단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광양시는 포스틸이 2차 사업까지 완료할 경우 직접효과 500명을 포함, 총 1천500여명의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박영진기자 pyj4079@

코트라 해외 동향 보고서

친환경 조명으로 주목받는 발광다이오드(LED) 시장이 오는 2011년에 지금의 2배인 8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트라는 9일 내놓은 '해외 주요국 LED 시장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48억 달러로 추산되는 전 세계 LED 시장 규모가 2011년에 84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에선 LED 시장 규모가 2013년에 지난해보다 159% 성장한 30억8천만 달러에 이르고, 신흥

과 간관 교체에 따른 수요도 236% 늘어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최대 LED 응용 제품 수출국인 중국의 LED 시장이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며 상하이 엑스포 등을 계기로 2010년까지 중국의 조명시장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대 LED 제품 공급국 중 하나인 대만은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력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 33억 달러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세계 친환경 LED 조명 시장 2011년 84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류 센서용 광섬유 개발 성공

광주과기원 한원택 교수팀



광주과학기술원은 9일 정보통신공학과 한원택(사진) 교수팀이 기존 전류 센서의 단점을 극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전류 센서용 특수 광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광섬유는 솔루션 도핑공정을 통해 화합물 반도체인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가 나노 크기의 양자점으로 함유된 광섬유 소재(Preform)제작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광섬유는 솔루션 도핑공정을 통해 화합물 반도체인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가 나노 크기의 양자점으로 함유된 광섬유 소재(Preform)제작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 교수팀은 이를 이용한 광섬유형 전류센서 프로브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광섬유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류센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에서 기존 센서가 갖는 문제점인 측정범위의 한계, 외부 환경 의존도, 대형화 장비의 측정 한계, 설치와 시열 운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한 차세대 전류 센서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하이브리드형 자동차 부가 등에 따라 발전기와 컨버터 등 전류 변환 장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류 센서의 필요성이 두드러져 이 기술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발전소와 변전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설비의 고압, 고전류 측정, 감시 등에도 이 전류 센서의 수요가 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5월 생산자물가 하락

지난달보다 0.8% 내려

생산자물가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0.8% 하락했다.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상승률은 2월 0.6%를 기록한 뒤 3월 0.5%, 4월 0.2%로 둔화해왔다.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2월 이후 상승폭을 줄여오다 -1.3%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항만에도 공장설립 가능

12월부터 항만규제 완화

올 12월부터는 항만에 제조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항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올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 내에서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시설은 설치 가능했지만 제조시설의 설립은 불허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house, and commercial property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 Real Estate Broker. Services include land acquisition, water rights, and property management. Contact: 062-973-9174.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Listings for land and houses in various areas. Contact: 383-5221.

대인동상일부동산 Real Estate Broker. Specializing in model houses and various types of properties. Contact: (02)223-1140.